

우리나라 산지전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Forest Conversion in Korea

전용준^{1*} · 이준우² · 이선미³ · 한성우¹ · 최윤호¹ · 김명준¹

충남대학교 대학원¹ · 충남대학교 환경임산자원학부² · 산림청 휴양림관리소³

I. 연구목적

산림은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65%로써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광대한 면적과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에도 불구하고 산지는 각종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는 훼손 및 전용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방안의 주장에 앞서 현재의 산지훼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산지보전 및 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지전용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산지의 훼손실태와 유형들을 분류하기 위해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의 산림형질변경 내역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우리나라의 산지전용 실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65%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는 산림국이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많은 인적자원을 수용해 내기 위해 산지는 개발 예정지역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목별 점유면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면적은 여전히 임야와 전답이 높지만 임야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7만 2천ha의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전답의 경우 약 8만4천ha의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목은 도로로서 4만9천ha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지의 경우 3만8천ha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로의 증가는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인 훼손을 유발하는 택지조성과 달리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2차적인 개발압력을 유발시키는 등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산지전용허가의 추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의 굴취를 위해 매년 약 1,000~2,800건 정도의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는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맞물려 공장과 택지개발, 도로의 확충 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지자체별 산지전용 실태

경기도의 경우 200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지전용허가건수의 36%, 면적은 2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화성시가 1,399건, 449ha의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산지전용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파주시 423ha(369건), 양주군 221.5ha(354건), 남양주시 209ha(346건) 등의 순으로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도별로는 기타 항목이 2,433건, 814.1ha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택지개발이 3,409건 791.6ha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면적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공장부지 조성이 903건, 609.8ha이었으며, 도로조성을 위해 290건, 294.1ha에 달하는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2004년 현재 총 건수로는 1,465건이었고, 용도별 건수로는 기타(565건), 택지(326건), 묘지(284건), 도로(169건), 공장(85건), 농지(30건), 광업(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 총면적은 946.61ha이었으며, 용도별 허가건수 면적은 기타(725.55ha), 도로(108.34ha), 택지(39.67ha), 공장(36.34ha), 농지(27.63ha), 묘지(5.44ha), 광업(3.64ha)의 순으로 조사되었다.